

PRESS RELEASE

기체 | ≪-Director≫

전시기간 2024.08.29목 - 2024.09.28토

전시장소 기체

작가 시용춘(SHIH Yung Chun), 권아람(KWON Ahram), 정수정(JUNG Soo Jung)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SHIH Yung Chun)

**KICHE**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5 가길 20  
02 533 3414 [www.gallerykiche.com](http://www.gallerykiche.com)

문의

김우재 T. 02-533-3415 / E. [info@gallerykiche.com](mailto:info@gallerykiche.com)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와 글은 세부 정보 및 저작권 정보를 꼭 명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세 작가들의 작업 안에 반영된 연출자적 태도를 살피고 작가별 감상자와의 관계설정 방식을 살피는 전시

### 전시 소개

기체는 권아람, 시용춘, 정수정 작가가 참여하는 기획전 <<-Director>>를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갖는다. 이번 기획전시는 작가들이 취하고 있는 '연출자'의 태도, 작업 방식을 중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 여기서 '연출자'란 거칠게 압축하면, 작가의 관점에서 '레퍼토리'를 정해 서사와 작업형식, 재료를 선택하고, 그에 걸 맞는 연출 방향, 구성 등 극의 총체를 디자인함으로써 가시화된 결과물로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곧 작가 고유의 관점, 세계관을 바탕으로 감상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접근해갈 것인지와 깊이 맞닿는다.

앙토냉 아르토(Antonin Artaud)가 제안한 '잔혹연극'은 전시의 모티브로 무엇보다 연극이 어렵고 잔혹한 것을 뜻한다. 그러나 "잔혹은 공연 차원에서 신체나, 인체모형 절단처럼 반목해 즉물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이 우리에게 대항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무섭고 필연적인 어떤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하늘은 언제든지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 연극은 무엇보다도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 ... 나는 연극을 통해 황홀경을 자극하는 수단들과 이미지들이 신체적 인식의 이념으로 되돌아갈 것을 제안한다."<sup>1</sup>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가상 사이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작업의 소재를 찾고, 상징성을 부여해 특유의 방법론으로 무대를 꾸려 작가의 관점 또는 연출자적 태도를 길게 투영한다.

권아람 작가는 일상의 거의 모든 장소와 시간에 걸쳐 촘촘한 거미줄처럼 펼쳐진 미디어 네트워크를 회의적으로 사유한다. 점점 더 스크린은 그 물리적 형태를 해체하고, 미세 단위로 분화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층위까지 스며들어 있다. 주체가 개입해 자극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온/오프 스위치는 더 교묘하게 감춰지고, 안개처럼 섬세하고도 집요하게 삶과 정신세계의 내부로 파고든다. 노출되는 장소, 시간, 방식을 구체적으로 인지해, 주체의 자유의지로 환경을 조절하는 것은 이제 위성으로 우주에 광고를 띄우려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는 터라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중벽>은 스크린과 거울이 결합된 작품들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으로 다섯 개의 스크린이 하나로 묶여 있다. 감상자는 작품이 설치된 방에 들어서면 아무런 사전정보나 동화를 유도하는 설명 또는 과정 단계 없이 곧바로 빛의 불연속 점멸에 노출된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점멸하는 벽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거울은 앞에 선 대상을 반영하지만, 동시에 밀어낸다.

시용춘의 작업은 직접 수집해왔거나, 새로 발견하게 된 옛날 잡지 사진, 가구, 장난감 등에서 시작된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객체'들을 자유롭게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설치, 영상, 조각, 회화, 단편 소설 등 복합적인 작업 형식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규칙을 따로 두지는 않는다. <KITCHEN>에서 보듯 한 장의 잡지 사진을 바탕으로 선반, 오브제, 인물을 작가가 직접 제작하거나, <Private Hotel>처럼 이전에 작업했던 미완성 돌 하우스(doll house) 회화를 대형의 장소 특정적 설치작업

<sup>1</sup> 앙토냉 아르토 『연극과 그 이중』, (지만지드라마 2021) 144 ~146p. 발췌 인용

으로 발전시키기도 한다. 메인 작업인 <Private Hotel>은 거울로 둘러싼 방 중앙에 인형의 집을 배치하고, 앞을 벽으로 막아 허리춤 높이의 작은 구멍과 2층 난간을 통해서만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해 감상 방식과 통로를 작가가 적극 간섭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술가들에게 '장난감'이 지니는 이런 복합적인 측면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 맥락에서 작가가 수집하거나, 손수 만든 장난감, 오브제들로 만들고 그려낸 장면들은 현재와 과거, 현실과 이상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그와 우리의 내면에 자리한 비현실적인 꿈 또는 어떤 상실이다.

정수정의 서양과 동양을 오가는 참조들로 익숙하지만 낯설게 보이는 이중적인 화면을 촘촘하게 구성한다. 작가가 평소 모아뒀다가 화면 위로 불러들인 갖가지 도상들은 그 자체로 상징성을 표출하거나, 한 데 어우러짐으로써 연속, 불연속을 오가는 서사적 장면을 만들어낸다. 이 장면들은 하나의 큰 세계관으로 수렴하는 듯하면서도, 늘 일치되지 않고 어긋난다. 감상자는 익숙한 도상에 이끌려 화면 앞에 서면서도 장면에 쉽게 몰입하거나, 동화될 수 없다.

이번 전시에서 새롭게 소개하는 '열대 회화 시리즈'는 자연물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양식과 유형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삼면화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 작품 <Tropical Games>, <My Juggler>, <Shell and Tango>는 자연, 여성, 님프, 동물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 데 어우러지도록 하고, 또 반복과 패턴을 적극적 수단으로 삼아 화면 간 연결, 균형을 꾀한다. 딱딱한 껍질과 미끄러운 피부를 가진 거북이에서 출발해, 진화를 거듭하며 생존하고 있는 여러 종의 동식물들로 이어지고 가상의 인물과 조우한다, 자연의 역동적인 힘을 작가의 화법과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다.

세 작가가 작업에서 취하고 있는 '연출자'의 태도, 방향은 저마다 다르다. 하지만 몰입이나 동화를 유도하기보다, 오히려 감상자와의 거리나, 일정의 어려움을 의도해 조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감상자는 시각적 감흥에 과도하게 휩쓸리지 않고, 마치 아르토가 제안했던 '잔혹연극'의 무대처럼 이들 작품 앞에 차가워진 머리로 서 있게 된다.

**참여작가****시용춘 SHIH Yung Chun**

시용춘(b.1978)은 대만에서 거주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작가로 국립대만예술대학교에서 서양화과 학사를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 HiArt space (2021, 상해), YIRI ARTS (2021, 타이베이), Hiv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2019, 베이징), 798 Line-Gallery (2016, 2012, 베이징), Art Experience Gallery (2015, 홍콩) 등이 있다. 그리고 기체 (2024, 2023, 서울), 하이데 현대미술관 (2024, 멜버른), YIRI ARTS (2024, 2018, 타이베이), 타이둥 미술관 (2023, 타이둥), 룡 뮤지엄 웨스트번드 (2022, 상해), Hive Center for Contemporary Art (2021, 베이징), 푸리서 예술공간 (2018, 타이베이), 룡 뮤지엄 푸둥 (2013, 상해) 등 여러 단체전에 참여했다.



시용춘

***Private Hotel***

2024, Acrylic on Wooden panel, Ceramics, Fabric, Carpet,  
Antique ready-made object, 3D Prints, Oil on canvas  
183W x 191H x 93D cm

Courtesy of KICHE © SHIH Yung Chun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SHIH Yung Chun)



시용춘

***Kitchen***

2024, Acrylic on Wooden panel, Air Dry Kaolin Clay, Antique wine bottle, Antique Paper box  
51W x 63H x 32D cm  
Courtesy of KICHE © SHIH Yung Chun



시용춘

***Choice Paralysis in Tableware***

2024, Oil on canvas, 90.9 x 72.7 cm  
Courtesy of KICHE © SHIH Yung Chun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SHIH Yung C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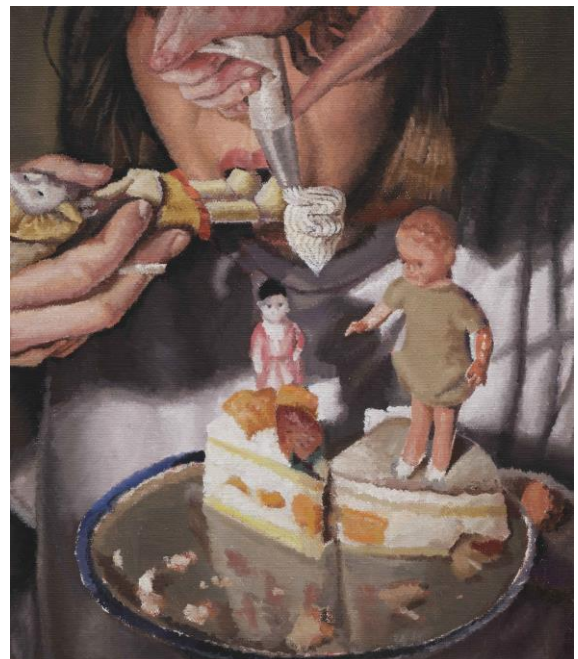
시용춘

*Homage to European Architecture*

2024, Oil on canvas, 3D prints Dolls

65 x 53 cm (Painting), 32 x 18 x 13 cm (2 Dolls)

Courtesy of KICHE © SHIH Yung Chun



시용춘

*The Pastry Chef*

2024, Oil on canvas, 53 x 45 cm

Courtesy of KICHE © SHIH Yung Chun



**권아람 KWON Ahram**

권아람(b.1987)은 건국대학교 디자인조형대학 광고영상디자인 전공, 영국 런던대학교 슬레이드 미술대학 파인아트 미디어 석사 졸업 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더 그레이트 컬렉션 (2021, 서울), 원앤제이 플러스원 (2018, 서울) 등에서 개최했으며, 기체 (2024, 2023, 서울), 뮤지엄한미 (2024, 서울), 송은 (2022,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2022, 서울), 성곡미술관 (2021, 서울) 외 홍콩, 런던, 독일, 네덜란드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2022년에는 제21회 송은미술대상전(2021) 대상을 수상했다.

**권아람****(L) *Double Wall\_R2***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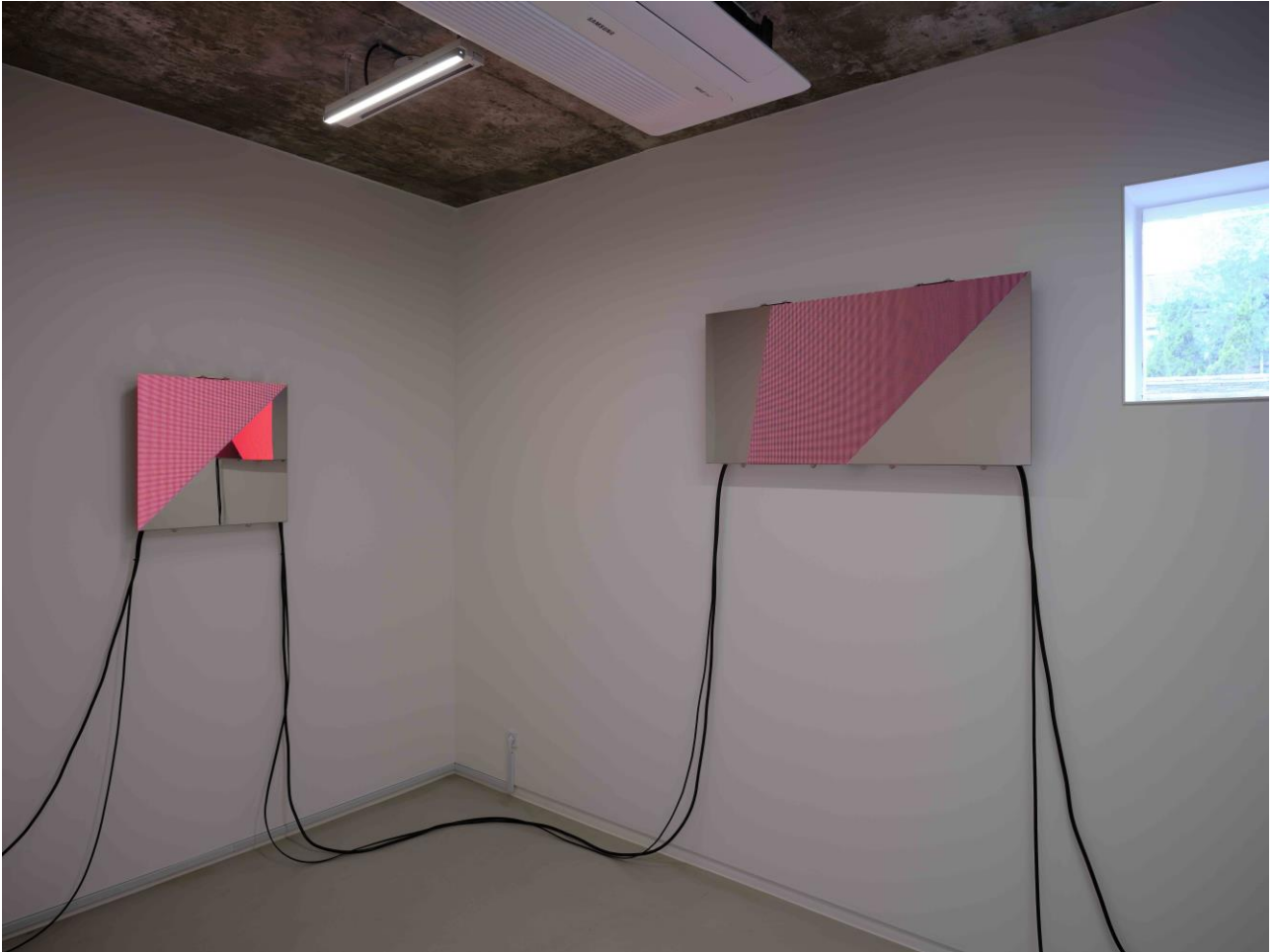
**(M) *Double Wall\_R4***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R) *Double Wall\_R5***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Courtesy of KICHE © KWON Ahram



권아람

(L) *Double Wall\_R2*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R) *Double Wall\_R3*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100 x 8 cm

Courtesy of KICHE © KWON Ahram



권아람

(L) *Double Wall\_R3*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100 x 8 cm

(M) *Double Wall\_R2*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R) *Double Wall\_R4*

2024, LED, stainless super mirror, 50 x 50 x 8 cm

Courtesy of KICHE © KWON Ahram

**정수정 JUNG Soo Jung**

정수정(b.1990)은 가천대학교 회화과 학사, 영국 글래스고 예술학교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에이라운지 (2023, 2021, 서울), SeMA창고 (2021, 서울), OCI미술관 (2020, 서울) 등에서 개최했으며, 기체 (2024, 서울), IAH (2024, 2023, 2021, 서울), 페이스갤러리 (2024, 서울), 프리즈 서울 (2023, 서울), 대전시립미술관 (2023, 대전), 일민미술관 (2023, 서울), 실린더 (2022, 서울), 뮤지엄헤드 (2020, 서울),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2019, 서울), Project Space1 (2015, 글라스고), Stirling Castle (2015, 스털링)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정수정

*My Juggler*

2024, Oil on canvas, 122 x 91 cm (Painting), 65 x 62 x 30 cm (Stand)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정수정

*Shell and Tango*

2024, Oil on canvas, 122 x 91 cm (Painting), 65 x 62 x 30 cm (Stand)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정수정

*Tropical Games*

2024, Oil on canvas, 122 x 91 cm (Painting), 65 x 62 x 30 cm (Stand)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JUNG Soo Jung)



정수정

*Strophanthus*

2024, Oil on canvas, 50 x 45 cm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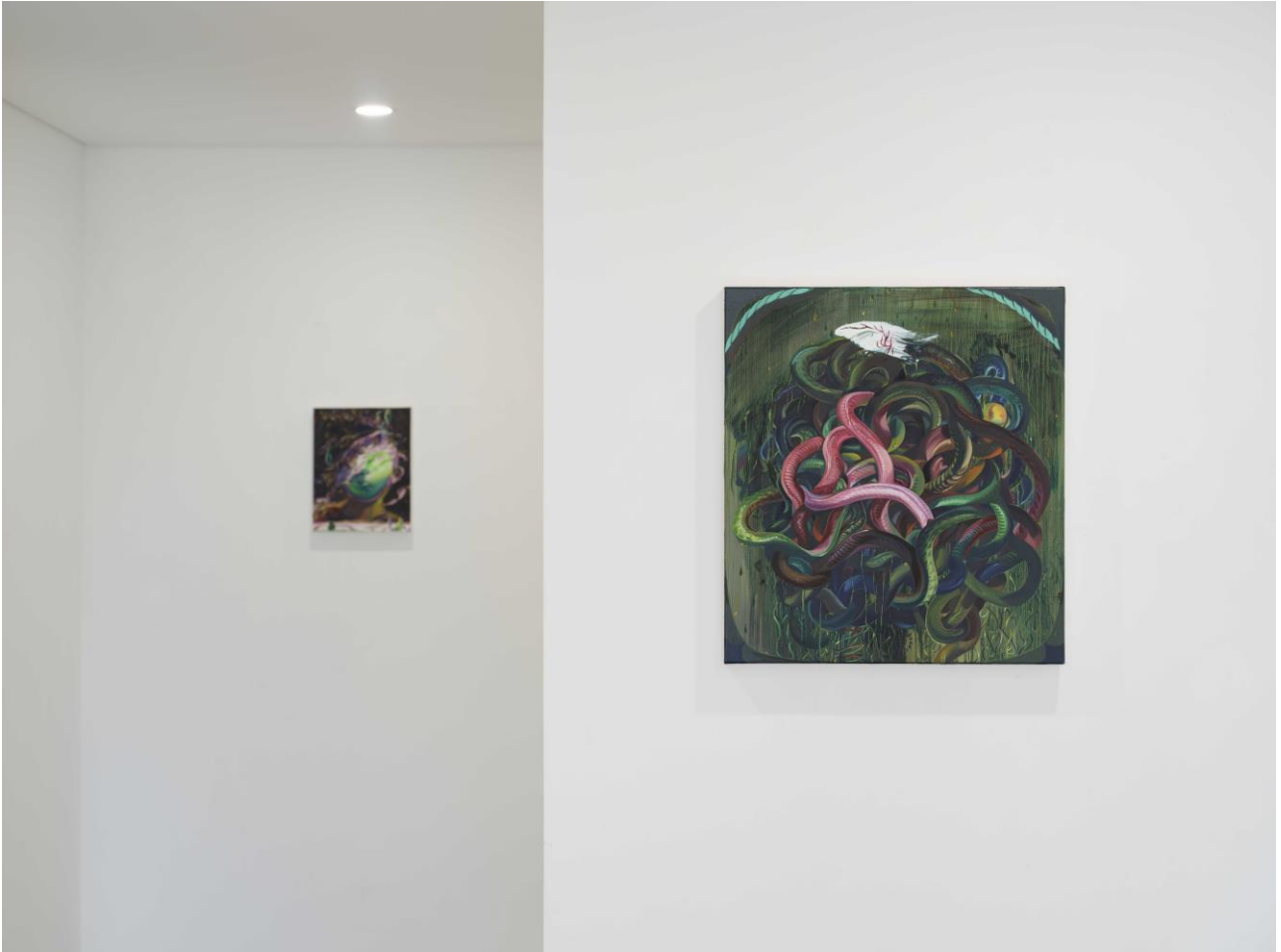


정수정

*Dead Sea*

2024, Oil and acrylic on canvas, 31.8 x 40.9 cm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JUNG Soo Jung)





정수정

*Harvest*

2024, Oil and acrylic on canvas, 30 x 24 cm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정수정

*Fare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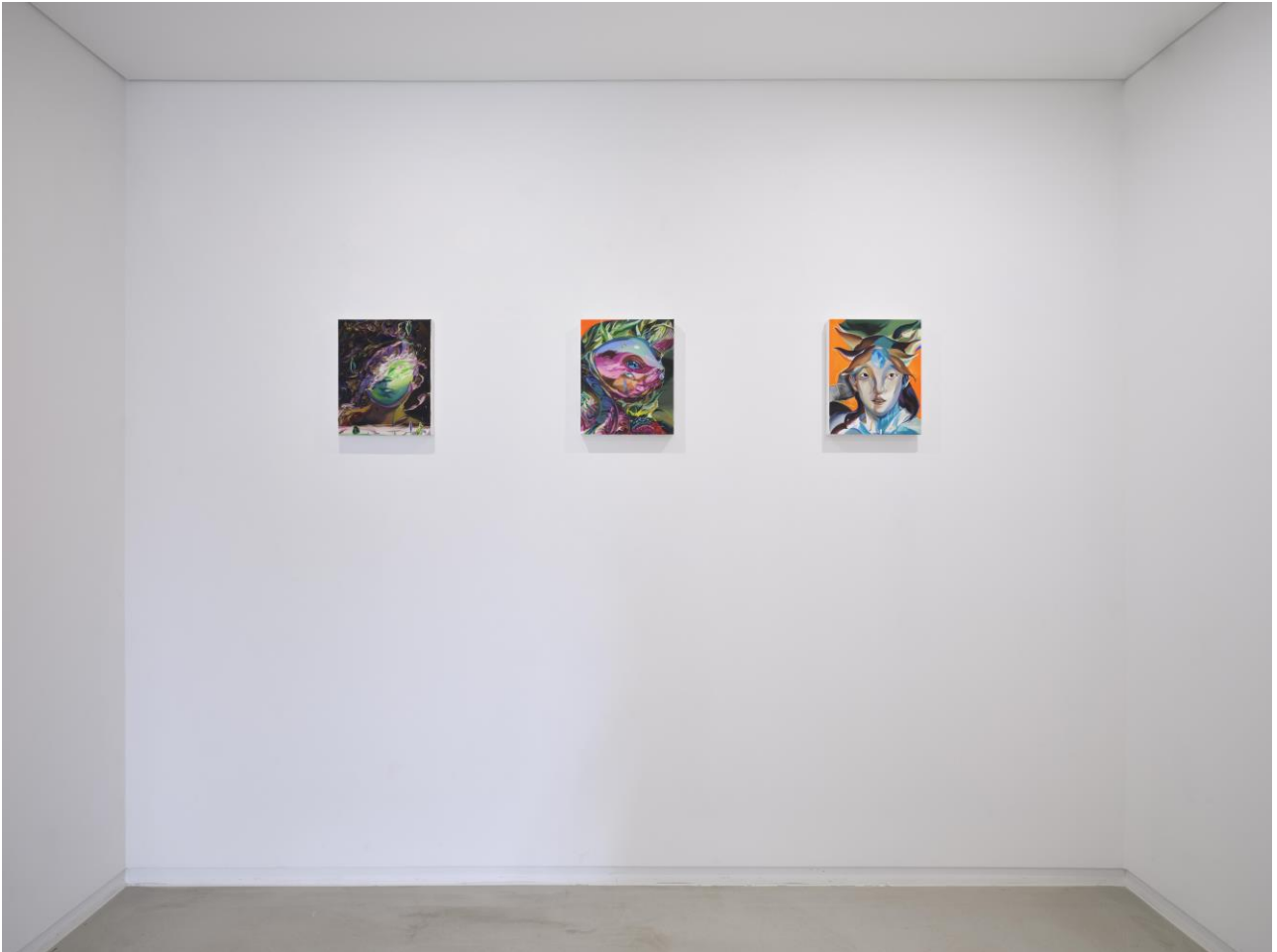
2024, Oil and acrylic on canvas, 30 x 24 cm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정수정

*My old friend*

2024, Oil and acrylic on canvas, 30 x 24 cm  
Courtesy of KICHE © JUNG Soo Jung



《-Director》 전시전경  
(Image courtesy of KICHE and JUNG Soo Jung)